

# 제주잠녀 유네스코 등재 길 열렸다

문화재청 중요국가무형 문화유산 지정·보호 계획 확정  
우선 등재 목록 상위 포함...가치평가 작업 탄력 기대

등록 : 2012년 05월 04일 (금) 17:53:15 | 승인 : 2012년 05월 04일 (금) 17:54:11  
최종수정 : 2012년 05월 04일 (금) 19:37:41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mailto:popmee@hanmail.net)

'제주 잠녀'가 국가지정무형문화유산으로 보호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잠녀·잠녀문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작업에도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김치와 아리랑, 잠녀와 고려인삼 등 우리 민족의 삶을 구성해온 무형적 자산들이 앞으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을 확정, 3일 발표했다.

늦어도 올 연말까지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을 분법(分法)해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2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검토를 통해 우선 등재 추진 11개 종목에 포함된 '제주 잠녀'의 사회문화적 가치 평가 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문화재청의 이번 조치는 유네스코 등재 신청 대상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 지정 무형문화재만 포함하면서 문화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우리 고유문화가 제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주변 국가의 유사 문화에 밀리는 등 정체성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제주잠녀·잠녀문화 역시 전승·보존의 필요성이 수년에 걸쳐 강조돼 왔었다. 제민일보가 사회·문화·역사적 가치를 기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5년 6월부터 '제주 잠녀'기획을 진행하며 공감대 형성을 유도했다. 2009년 3년여의 노력 끝에 해녀문화 보존 및 지원 조례가 탄생하면서 문화재로의 평가가 기대됐었다.

이후 제주도가 지난해 제주잠녀·잠녀문화 세계화를 천명하고, 제주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 발족과 함께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 계획을 확정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부 차원의 호응을 얻어냈다는 평가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제주잠녀·잠녀 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작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유산 진흥·발전 정책의 실행기구로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도 설립하기로 했는가 하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무형유산 공연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앞서 대표목록에 포함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mailto:popmee@jemin.com)

## 추진일지

- \* 2005년 5월 제민일보 제주 잠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등재 추구 '대하 기획 제주 잠녀'연재 시작
- \* 2006년 6월 제주해녀박물관 개관
- \* 2007년 6월 해녀문화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작성
- \* 2009년 9월 해녀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 \* 2009년 11월 해녀문화 보존 및 지원 조례 제정
- \* 2011년 7월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 계획(안) 마련/제주도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 출범
- \* 2011년 9월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 계획 확정
- \* 2012년 2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대한민국무형문화유산국가목록'연구 결과 '잠녀'포함 결정
- \* 2012년 5월 문화재청 잠녀 등 비지정 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 등 포함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 확정